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2
주주총회 소집공고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III. 경영참고사항	7
1. 사업의 개요	7
가. 업계의 현황	7
나. 회사의 현황	15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4
☐ 재무제표의 승인	24
☐ 정관의 변경	27
☐ 이사의 선임	30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1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 년 03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엠이씨
대 표 이 사 : 이효제, 원종범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솔리 666
(전 화) 055-250-4814
(홈페이지)<http://www.esm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최영섭
(전 화)02-535-773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2년 03월 23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III. 경영참고사항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고)
· 제1호 의안 : 제16기(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제17기 이사보수지급한도 요청액 : 일금이십오억원정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제17기 감사보수지급한도 요청액 : 일금이억원정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 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③ 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솔리 666

주식회사 에스엠이씨
공동대표이사 이효제, 원종범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신순목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11-01	2011.02.01	-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가결	찬성
2011-02	2011.02.16	- 제1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2011-03	2011.06.10	- 제1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2011-04	2011.07.27	- 본점 이전의 건	가결	찬성
2011-05	2011.08.26	- 유형자산 처분의 건	가결	찬성
2011-06	2011.09.09	- 유형자산 처분 변경의 건	가결	찬성
2012-01	2012.03.02	- 제16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500,000	25,000	25,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회전체의 보수 한도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통신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 산업의 개요

미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영상·데이터 등 모든 형태의 정보가 다양한 통합 단말과 서비스를 통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보편화될 전망이며 또한 모든 일상품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능기반의 유비쿼터스 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인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해외에서는 통상 NGN(Next Generation Network)으로 명칭)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등 신규 통신서비스의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BcN(NGN) 인프라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IP 프로토콜 기반의 음성·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IMS(IP Multimedia Subsystem)망으로의 진화 및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유무선통합(FMC: Fixed-Mobile Convergence)망으로의 빠른 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통신 사업자들의 IMS, FMC 도입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 등 기존의 기술·산업·서비스·네트워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통신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가 되는 초광대역융합망(UBcN) 장비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지식경제부는 음성통신서비스에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BcN(UBcN), WCDMA 등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여러 가지의 통신 산업 육성정책은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통신장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IT분야의 급격한 기술환경변화 대응과 아울러 향후 개발할 제품 및 서비

스를 규명하고 최적의 R&D 방향 마련을 위해 2009년 6월부터 산·학·연 2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11대 IT기술분야별 2010-2015년간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미래 IT산업의 중점연구테마를 탐색하고 이를 IT R&D 중장기 계획 및 산업원천 기술개발 과제발굴시 반영키위해 '08년 수립한 "ITRM 2013"을 기반으로 11대 기술분야별 발전전략 제시 및 중장기 기술개발(IT STRM 2015)수립하였습니다.

IT R&D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1대 기술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 업	수 립 분 야
전자정보디바이스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LED 및 광
정보통신미디어	④ 홈네트워크·정보가전
	⑤ 디지털 TV/방송
	⑥ 전파방송위성
차세대통신네트워크	⑦ 이동통신
	⑧ BcN
SW·컴퓨팅	⑨ SW(임베디드SW포함)
	⑩ 차세대컴퓨팅
	⑪ 지식정보보안

나. 산업의 성장성

■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Gartner에 의하면 세계 통신시장은 2008년 1조 9,452억 달러에서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2조 1,38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통신장비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2011년 부터 9%이상의 높은 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9년에는 마이너스 4.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세계 통신시장 현황 및 전망, 2008 ~ 2013]							
(단위 : \$M)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2013 CAGR(%)
통신장비 합계	372,645	344,062	364,215	399,154	435,329	474,153	4.9%
성장률 (%)	-	-7.7%	5.9%	9.6%	9.1%	8.9%	

통신서비스 합계	1,572,591	1,511,789	1,534,496	1,574,518	1,617,033	1,664,173	1.1%
성장률 (%)	-	-3.9%	1.5%	2.6%	2.7%	2.9%	
통신시장합계	1,945,236	1,855,851	1,898,711	1,973,672	2,052,362	2,138,326	1.9%
성장률(%)	-	-4.6%	2.3%	3.9%	4.0%	4.2%	

(자료: Gartner Dataquest, 2009. 6, Gartner Forecast, 2009. 7)

IMS, FMC 등 차세대통신서비스의 핵심인프라가 되는 BcN 장비의 세계시장의 경우 2009년 972억 달러에서 연평균 5.6%의 성장율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1,209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국내 BcN 장비 생산액은 2009년 1조 1,891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3년에는 1조 7,104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BcN 장비 세계 시장,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M, 백만원)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2009-2013
세계 시장 계	97,242	100,525	106,248	112,371	120,964	5.6%
국내 시장 계	1,189,130	1,296,668	1,422,261	1,557,966	1,710,491	9.5%

(자료: Gartner, IDC, OVUM, In-Stat, MindCommerce 보고서를 분석하여 ETRI 기술전략 본부에서 작성, BcN 장비산업의 시장전망 및 금융위기 대응실태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1)

이에 당사의 주력제품인 미디어게이트웨이와 시그널링게이트웨이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게이트웨이는 개방형 구조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장치로 교환장비를 대체해 나가면서 생산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PSTN과의 연계를 위한 시그널링 게이트웨이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5억원 규모의 생산액을 보일 전망입니다.

[전달망 계층 교환장비 국내생산액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2009-2013
Media Gateway	59,564	63,585	67,883	72,193	76,554	6.5%
Signaling Gateway/STP	15,789	16,634	17,590	18,531	19,528	5.5%

ATM(MPLS)교환기	42,000	41,160	40,769	40,618	40,362	-1.0%
합 계						0.7%

(자료: BcN 장비산업의 시장전망 및 금융위기 대응 실태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1)

한편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전화 단말 간 보안 및 세션기능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 등을 제공하는 장비로 IMS(IP Multi media Subsystem) 및 VoIP(Voice over IP) 서비스에 필수적인 장비인 SBC (Session Border Controller)의 세계시장 전망은 2009년 4.4억 달러에서 2013년 5.7억 달러로 연평균 6.3%의 성장율을 보이고, 국내생산은 2009년 156억에서 2013년 300억으로 연평균 17.8%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SBC 세계 시장 현황 및 국내 생산전망]

(단위 : \$M,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2009-2013
세계시장 계	446	472	498	517	570	6.3%
국내시장 계	15,600	19,146	22,826	26,316	30,071	17.8

(자료: BcN 장비산업의 시장전망 및 금융위기 대응 실태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0.01)

기계사업부문

가. 산업의 특성

■ 산업의 개요

(1) 공작기계

공작기계(Machine Tool)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Mother Machine)'라고 일컬어집니다. 공작물의 종류별 형상에 따라 여러가지의 공작계와 공구가 사용되고 자동차 부품을 비롯하여 산업기계, 발전기, 가정전기제품, 항공기, 조선, 및 우주산업등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부품이 공작기계로 인해 가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품들을 가공하는 기계도 공작기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작기계를 기계로 만드는 기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것이며, 다양한 제조방법중에서도 절삭가공과 소성가공에 이용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합니다. 공작기계를 만드는 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으로 간주되어왔으며 동 공업의 발전수준은 일국의 공업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특성으로는 공작기계는 자본재산업의 핵심산업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산업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매우 큼니다. 공작기

계사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투자자본에 대한 자본회전율이 낮으며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자본회전이 느린 산업입니다. 또한, 불경기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호황기에는 늦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사업은 규격, 품질, 성능 등 다양한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서 기술축적에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모방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공작기계 수요업체는 가격을 구매의 제 1요인으로 두고 경제적 장비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중/대기업은 무인 운전을 목적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FMS/C)의 도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 공작기계 산업 정의 및 분류

공작기계 산업은 금속소재를 가공하여 각종 기계부품이나 기계를 만들어내는 설비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공작기계는 가공방법에 따라 크게 금속절삭기계와 금속성형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분류, 특성 및 각각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금속절삭기계

금속절삭기계는 금속을 비롯한 각종 경질 물질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가공을 하는 기계를 뜻하며 이는 다시 선반, 밀링머신 등의 범용 공작기계와 특정한 모양이나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에 적합한 전용공작기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범용공작기계에 수치제어기능을 더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자동 가공이 가능하게 한 NC(Numeric Control)절삭기계가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 금속성형기계

금속성형기계는 소성 가공(재료에 외력을 가하여 여러 형태로 가공하는 것)에 속하는 기계로 단조, 압연, 프레스, 압출, 판금 가공을 주로하는 기계류를 뜻합니다. 프레스, 압연기, 전단기, 벤딩머신 등이 이에 속합니다.

나) 공작기계 산업의 특성

A. 과점적 시장구조 : 국내 공작기계시장은 다품목 소량의 생산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액 면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대형 기종 위주의 일부 대기업 참여 부문을 제외하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로 대규모 자본 축적이 어려워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많은 기업이 난립해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액 규모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 자본재 산업 : 타 산업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중심 설비이므로 모든 기계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본재 산업입니다.

C. 소량 다품종 생산 산업 : 각 제품이 용처에 따른 공통성이 적어 주로 주문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고정밀, 고기능의 NC머신이 수요처의 필요에 따라 소량 생산되는 추세입니다.

D. 경기 민감성 산업 :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성 산업으로

특히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 동향에 의하여 시황이 좌우됩니다.

(2) 산업용 로봇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 미국의 유니메이션사에서 개발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포드자동차에서 1961년경 다이캐스팅 머신으로부터 주물부품을 하역하는 작업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이캐스팅 환경은 주물공정중에 방사되는 열과 연기 때문에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워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대표적이 대상이었습니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의 사용은 로봇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근래의 서비스 로봇의 경우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의 경우는 정밀도와 스피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용도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액정, 반도체업계 용 및 클린 환경 하에서 반송용 로봇을 위시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PDP나 LCD에 사용되는 얇은 유리판을 이동하는데 있어서 정밀하게 얼마나 빨리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가가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직다관절, 수평다관절, 다이렉트 드라이브 로봇등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공작기계

1) 시장의 동향

공작기계 산업은 2008년도 최대실적을 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로 2009년 주춤하였다가, 2009년 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2010년 공작기계 시장은 연초부터의 회복세가 이어지며 이전 최대실적을 나타냈던 2008년도 실적을 상회했는데, 이는 자동차 및 부품, 전기 전자, 일반기계 등 내수업종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해외시장도 중국 등 아시아시장과 중남미등 신흥시장이 성장을 지속하고 유럽 및 미주 수요도 하반기에 소폭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2010년 공작기계 수주는 3조 4,915억원으로 사상처음 3조원을 상회하며 전년대비 82.6% 증가하였는데 연도별로는 글로벌경기 침체로 8년만에 처음 감소했던 2009년 수주 실적에서 벗어나며 큰 폭의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분기별로는 2/4분기를 정점으로 3/4분기에 다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다시 증가했으며, 월별로는 '09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공작기계 수주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9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수주	2,044	2,538	5,255	4,685	4,203	3,812	3,254	2,814	3,089	34,742
(증감율)	(-14.7)	(24.2)	(75.3)	(29.3)	(29.3)	(29.3)	(33.0)	(3.1)	(21.7)	(36.8)
내수 수주	1,296	1,432	2,914	2,965	2,538	2,198	1,778	1,706	1,479	19,469
수출	748	1,106	2,341	1,720	1,665	1,614	1,476	1,108	1,610	15,272

수주										
----	--	--	--	--	--	--	--	--	--	--

* 자료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회원사)

* ()은 전년동월(동기)대비 증감률

○ 2011년 9월 공작기계 수주는 3,089억원으로 전월대비 9.8% 증가(전년동월대비 21.7%)했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24개월연속 증가했습니다. 내수수주는 1,479억원으로 전월대비 13.3% 감소(전년동월대비 3.2%)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수주는 1,610억원으로 전월대비 45.3% 증가(전년동월대비 45.6%)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2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1~9월 공작기계 수주는 3조 4,7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증가하며 3조원을 상회했고, 내수수주는 1조 9,4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7%증가했으며, 수출수주는 1조 5,272억원으로 52.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 공작기계 수출]

(단위 : 천불)

구분	2011.5월	6월	7월	8월	9월	증감률1) (%)	1~9월	증감률2) (%)
NC선반	47,727	56,381	65,594	58,580	61,665	5.3	474,510	104.8
머시닝센터	30,725	28,357	42,799	32,840	42,965	30.8	321,492	44.7
프레스	38,926	33,756	44,701	23,442	25,558	9.0	296,676	63.2
3대품목 합계	117,378	118,494	153,094	114,862	130,188	13.3	1,092,678	71.9
보링기(NC포함)	2,315	10,869	3,414	6,763	8,037	18.8	64,650	19.6
연삭기(NC포함)	4,009	2,714	5,928	2,187	1,872	-14.4	26,701	-19.7
밀링기(NC포함)	1,423	311	2,903	2,896	3,181	9.8	17,863	-59.1
범용선반	1,259	1,667	5,141	1,781	511	-71.3	19,999	50.8

* 자료 : 관세청, 주 : 증감률 1)은 전월대비, 2)는 전년동기대비

○ 공작기계 수출은 2010년 3월 이후 8개월연속 월 1억불 이상 수출하며 전년대비 32% 증가한 16.8억불의 성과를 냈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작기계 3대 수출품목인 NC선반, 머시닝센터, 프레스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2008년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였으나,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과 미국 수출은 타지역에 비해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공작기계 수출은 1,602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반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의 견조한 흐름과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유럽, 북미, 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공작기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9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95	139	177	183	162	178	229	173	192	1602
(-43.0)	(45.6)	(55.9)	(43.5)	(10.5)	(11.6)	(36.1)	(-24.4)	(36.7)	(37.8)

* 자료 : 관세청, ()은 전년동월(동기)대비 증감률

[대륙별 공작기계 수출현황(2011. 1~9월)]

지역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수출액(백만불)	791.8	404.5	242.3	110.9
증감률(%)	(-2.8)	(167.0)	(135.5)	(202.5)
비중(%)	(49.4)	(25.2)	(15.1)	(6.9)

* 자료 : 관세청,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 시장의 전망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도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나 전년대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재정위기의 위험성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인 위험 요인들이 증가하며 국내외 공작기계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O 2011년 3분기까지 공작기계 수주는 3조1,65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4% 증가하며 3조원을 상회했으나, 증가율은 최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대비 8% 증가한 5조 4,000억원 규모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비투자는 2010년 23.9%의 증가에서 7.2%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요산업 생산도 한 자리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O 수출은 중국, 인도,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국 수요는 견실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20억 불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EMO 전시회 등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로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경쟁국가의 저가기종 개발, 중국 및 인도 등 수요국에서의 현지생산, 중국 공작기계 업체의 성장, 대만과 중국의 ECFA 체결 등으로 해외경쟁은 가속될 전망입니다.

(2) 산업용 로봇

국제로봇연맹(IFR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 세계 첨단 제조용 로봇시장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5.5%증가한 40억 8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3년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81,000대의 판매량을 보이며 2000년 초기 경기변동에 따른 판매량의 부진이 나타났지만 2003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의 운전대수 또한 증가율은 낮지만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능형로봇은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미래 'STAR산업'으로 타분야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으로는 자동차 산업 규모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으로 지능형로봇사업기획단(2004년)은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였고,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17개 사업중 응용로봇분야가 지정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지능형 로봇은 첨단 신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신산어의 창출을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사회적 측면으로는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통신사업부문

(1) 영업개황

■ BcN 장비 분류 및 당사제품 분야

BcN(NGN) 인프라 구축과 WCDMA서비스, IMS 및 FMC로의 서비스 진화를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들은 크게 ‘서비스 및 제어장비’, ‘전달망 장비’, ‘가입자망 장비’, ‘기업용 구내망 장비’등으로 분류됩니다.

당사는 서비스 및 제어장비 분야와, IP 기반의 단일망으로 교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달망 장비 분야의 교환장비를 자체개발하여 통신사업자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외산의존도가 높은 국내시장에 세계유수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시장 점유율

■ 경쟁구조에 관한 사항

당사가 속한 유·무선 통신장비 시장은 통신 사업자가 주요 고객인 시장입니다. 특정한 기업들에 의해 독점 또는 과점되어 있지 않는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수주 및 장비공급 프로세스는 통신사업자가 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제안요구서를 공고하게 되고 이에 대한 관련 장비를 제안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 간 경쟁을 통한 기술평가 및 입찰을 진행하여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요소로는 ① 통신서비스는 산업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안정된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며, ② 원가구조에 따른 가격경쟁력, ③ 타사보다 미리 투자로 연결시켜 큰 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이미 KT 등 통신사업자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도와 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화된 분석 및 즉각적 대응능력,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등 경쟁요소를 선점하였습니다. 이는 곧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확보하고 원천기술과 요소기술의 자체적 개발을 통하여 원가경쟁력, 기술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 경쟁우위에 관한 사항

당사는 BcN(NGN) 및 WCDMA, LTE 그리고 All-IP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IMS, FMC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망(코어(핵심) Network)에 적용되는 통신장비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T(KTF),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 U+ 등 국내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성능, 이중화, 용량, 확장성, 안정성 등 기술평가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공급권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도에 일본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NEC社 및 오끼社의 공급파트너로 선정되었을뿐 아니라, 베트남의 S-Fone 말레이시아의 YTL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기술평가에 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들이 자체의 고유 하드웨어 플랫폼 적용을 고집함으로써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는 반면 당사는 국제표준 하드웨어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BcN(NGN)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트렁크게이트웨이, 미디어게이트웨이의 음성품질에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며, 제어프로토콜 성능, 내부패킷스위치 용량, 코덱 용량 등에서도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oIP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당사 세션보더제어기(SBC)는 고성능 패킷 처리 전용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국내외 경쟁사 대비 성능,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TE 솔루션인 ePDG, IPsec 게이트웨이는 국내외 경쟁사 대비 높은 패킷 처리 용량과 성능, 안정성 측면 등 기술적 경쟁 우위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차별화, R&D 능력 및 기술요구사항 대응력, 유지보수 등에서 최대 강점을 지니면서도 가격경쟁력 또한 확보함으로써, 통신 사업자들의 절대 필요 요소인 장비의 성능,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경쟁사 대비 월등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MEC 시스템 비교우위표]		
비교우위	특 징	사업자 측면의 장점
원천기술 확보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샷시 등에 대한 원천 기술을 자체 확보 - 시스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모듈 자체 개발(시장요구에 대한 유연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 - 소프트웨어 100% 자체설계를 통한 빠른 시장 대응력, 고신뢰성 및 고성능보장	- 경제적인 장비가격으로 구축비용 감소 - 사업자에 최적으로 Customized된 장비사용으로 운용편의 및 고객의 요구 능동적 대응 가능

대용량 고밀도 시스템	트렁크게이트웨이 (14U) - 10K DS0채널 제공 (약 50만 가입자 수용용량) IMS-미디어게이트웨이 (12U) - 24K DS0채널 제공 시그널링게이트웨이 (12U) - 288 신호링크 제공 (약 200만 가입자 수용용량)	- 구축비용 및 관리비용 대폭 절감
독자적인 이중화 및 리던던시 개념	- 주요기능의 이중화 및 리던던시 - 자체개발 미들웨어 탑재 - 99.999%이상의 고신뢰성 보장 - 짧은 절체시간/적은 패킷손실율	- 고신뢰성 및 안정성 - 보장으로 안정적인 - 서비스 제공 가능
표준규격	- 국제 표준규격 수용	- 타 사업자 및 타 Vendor 장비와의 연동성 보장
Scalable, 개방형 구조	- cPSB 표준규격 샤시 사용, 안정성 및 높은 확장성을 보장	- 점진적인 NGN Migration
NGN 핵심부대 장비 Line up	- 세션보더제어기 - 시그널링게이트웨이, 트렁크게이트웨이, 미디어게이트웨이 - IMS-미디어게이트웨이 등 - NGN 핵심부대 장비 Line-up	- 안정성 및 연동성이 보장된 Turnkey구성 가능

(3) 시장의 특성

■ 제품과 경기변동

당사의 주요 고객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은 통신 사업자의 투자 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의 투자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고, 또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수주, 계약, 매출채권의 발생 등이 2분기 이후 본격화되며, 매출 비중이 하반기에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 주력제품인 BcN(NGN) 차세대 교환장비 시장은 차세대 통신 장비 투자 증가의 본격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인프라 고도화 사업인 UBcN 및 All-IP 기반의 FMC를 위한 IMS 구축 등의 망 진화에 의한 교체수요 등이 시장 확대 및 관련 장비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한 당사 차세대 제품군인 LTE security 장비 시장은 LTE 상용화와 투자 본격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시스템 사업뿐 아니라 보드 등 컴포넌트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트렁크/미디어 게이트웨이

트렁크/미디어 게이트웨이는 패킷 기반의 멀티서비스를 수용하는 단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의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장치로 Media Port를 통해 연동 망으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IP또는ATM 등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고속의 패킷 코어 망을 통해 목적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PSTN 음성서비스, N-ISDN, FR 및 무선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정합 기능과 다양한 입력 트래픽들을 패킷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 기능 및 관련 프로토콜 처리 기능입니다.

국내 목표시장은 국내 유선 기간통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 U+ , KCT 등이며 VoIP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터넷전화 070 기간통신사업자들도 목표 시장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동통신의 WCDMA망에 적용될 수 있는 미디어게이트웨이(CS-미디어게이트웨이)도 개발 완료하여 IMS로의 진화와 연계하여 이동통신 분야로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국내 공급처로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를 비롯하여 SK브로드밴드, LG U+ , 070 기간통신사업자인 KCT 등이 있으며 KT의 경우 BcN 및 VoIP 망 모두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G U+ 2009년부터 당사가 신규공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속적인 추가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목표시장인 NGN 관련 통신사업자들 중 현재 당사의 주요 공급처로는 네덜란드 Tele2(Versatel) 및 독일 TELES, 일본 유력 통신장비 업체인 오끼社를 통해 일본 NTT-ME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시그널링게이트웨이는 특정 미디어(예: IP)와 다른 미디어(예: PSTN)간의 신호 메시지 변환을 담당하는 장비로 BcN(NGN) 및 IMS, FMC 등 차세대 망 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망 장비입니다. 핵심망(코어(핵심) Network)이란 교환국에서 기본적으로 음성 통화 및 데이터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을 말하며 국내·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장비구축 시장이 목표시장이 됩니다.

국내 목표시장은 국내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인 KT(KTF),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 U+ 등이며 현재 규모는 작지만 VoIP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터넷전화 070 기간통신사업자들도 목표 시장에 포함됩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국내 공급처로 기간통신사업자는 KT(KTF), SK텔레콤, LG U+ 등이 있으며 주요 070 사업자로 삼성 SDS 등이 있습니다. 해외목표시장인 NGN 관련 통신사업자들 중 현재 당사의 주요 공급처로는 네덜란드 Tele2(Versatel), 베트남 S Telecom, 말레이시아 YTL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장비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PSTN 망에서 운용중이던 No.7 신호중계기(STP) 전체를 시그널링게이트웨이로 단계적으로 대개체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납품 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No.7 STP 대개체 사업은 시그널링게이트웨이의 매출 규모를 향후 몇 년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Session Border Controller

ALL IP 망에서의 보안 강화 및 가입자 세션에 대한 중간 중단 기능과 이기종 단말/망간의 프로토콜 호환성 정합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 SBC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전 유선 VoIP 시장의 경쟁적 확대에 의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국내 VoIP 관련 시장은 2007년 데이콤의 'myLG070' 서비스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 2009년 KT의 'QOOK' 서비스 출시 등이 이어지면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통신사업자들의 VoIP 서비스의 효율성 및 보안 이슈 QoS 보장 등을 위해서 필수 요소인 SBC 장비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라 장비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이에 대부분 외산이 차지하고 있는 SBC 장비 분야에서 사업자의 투자를 최소화 하면서도 고성능/고보안성을 유지하는 최적의 솔루션 장비로 SBC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의 BMT(Bench Mark Test)를 통과하고 행안망 VoIP 사업자에 당사 SBC를 공급하였습니다. 2010년 부터는 지속적인 VoIP 가입자의 증가와 KT, SKT/SKB, LG U+ 통신사업자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홈 및 기업형 유무선컨버전스(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 확대에 따라 SBC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WTCP

인터넷 망에서 사용되는 TCP 프로토콜은 유선 환경을 기본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동통신과 같은 무선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는 일반 TCP를 무선 인터넷 환경에 그대로 적용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이에 따라 무선 환경에 최적화된 무선 TCP(Wireless TCP) 프로토콜이 별도로 개발되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WTCP 장비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총량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현재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 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곧 엄청난 네트워크 투자비의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에 당사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 트래픽의 전송 효율을 높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인 WTCP 장비를 2007년 하반기에 개발하여 KT(무선부문)의 WCDMA망에 시범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2010년부터 KT의 본격적인 WTCP 상용화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WTCP 장비 도입이 예상되어지고 LG U+ , SK텔레콤의 데이터망 분야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IMS-비디오 게이트웨이

IMS-비디오 게이트웨이는 IMS 표준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존의 음성 전용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영상처리 기능(3G-324M 표준규격)까지 추가 구현되어 그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IMS-비디오게이트웨이가 IMS망에 구축된 후 IMS 망과 WCDMA 망 (3세대 혹은 3.5세대 이동통신) 간의 영상 통화 혹은 영상 부가 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할 경우 당사의 장비는 비디오게이트웨이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2008년에 영상게이트웨이 상용품을 납품 완료한 KT외에 SKT, LG U+ 등 국내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며, 관련 시장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었고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6) WCDMA/LTE IPsec 게이트웨이, ePDG

SMEC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패킷 데이터 게이트웨이 제품군은 IPsec 게이트웨이와 ePDG로, WCDMA망과LTE망의 고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유해 데이터를 차단하고 보안과 인증 기능을 담당합니다.

당사의 1차 목표 시장은 LTE 상용이 본격화된 일본 무선 통신사업자이며, KT, SKT, LG U+ 등 국내 주요 무선 통신사업자들의 LTE 시장이 본격화되는 2012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국내 수요의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체시장 현황

세계 유수의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들이 당사와 같은 성격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 제품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체 시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차세대 교환장비 관련 기술은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화하여 공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기반기술의 확보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Know-how)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산업의 장비공급 프로세스는 통신 사업자가 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제안요구서를 공고하게 되고 이에 대한 관련 장비를 제안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 간 기술평가(BMT: Bench Mark Test) 및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상기의 프로세스를 거쳐 당사가 사업권을 확보하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타경쟁사의 장비가 후발로 진입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과 IT, 그리고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지능화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전력 사용시간과 양을 통제하는것을 스마트그리드라고 합니다

■ 정부의 정책추진 현황

세계 스마트그리드 정책 수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력·통신·가전·자동차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력 및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최적지로서 10개 컨소시엄(168社)이 5대 분야 (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Smart Power Grid, Smart Elec. Service)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는 제주 실증단지를 2009년 말 부터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실시간 요금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식 전력

량계(스마트 미터) 보급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1조4,740억원을 투자하여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미터)로 전량 교체키로 하였습니다.

■ 당사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참여

당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단지 사업 Smart Place 분야의 KT컨소시엄, 한전컨소시엄 두 곳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 동 컨소시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사업부문

당사의 기계사업부문은 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를 모태로 1999년 6월 18일에 설립된 스맥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작기계(중소형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및 관련 부품, LCD 생산관련 Robot의 제조·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품질의 Machine center(이하 "MCT"라 함)와 CNC 선반, LCD 관련 로봇 등을 개발·제조하여 전국 4개 영업소(창원, 경인, 대전, 대구)와 대리점을 통해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내수경기 호황과 자동차 업체의 설비투자 등 관련 산업의 활황으로 인한 공작기계의 수요 증가로 인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해외에서도 유럽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미국 기계산업 및 아시아 지역의 공작기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08년 385억, 2009년 325억, 2010년 74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공작기계

1)영업의 개황

당사는 1989년 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로 시작하여 공작기계를 개발, 생산, 판매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치제어식 머시닝센터, 선반, 보링머신, 전용기등을 공급하는데 이는 모두 자체개발하여 매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작기계의 국내시장 여건은 마이너 업체를 불문하고 중,소형의 규격화된 모델을 개발 양산해온 대부분의 국내 공작기계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몇 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공작기계 분야는 근접할 수 없는 분야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대부분 산업의 중요 부품가공은 독일, 일본 등 고가의 수입공작기계가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공작기계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중소형 공작기계의 개발에 집중하여 대부분의 기종에 대해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과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A/S와 고객들의 요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제품에 반영시키려 노력하는 소비자중심의 기술개발과 영업 전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가공용 공작기계 개발을 위해 선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단기 납기, 품질, 가격 경쟁력 면에서 수입기계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공작기계업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
-----------------	----------

회사명	2010년도
	점유율
현대위아(주)	43.9
두산인프라코어	41.8
화천기계공업(주)	8.2
(주)뉴그리드	6.1

주) 공작기계협회자료를 근거로 당사의 생산품목을 기준으로 산출

- 당사는 시장점유율을 수주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공작기계 Line UP 전개방향

- 1단계 : 2007 ~2008 년(기술제휴선, OEM ,외주개발)

LOW - END 일부 LINE UP ► LINE UP 확대

- 2단계 : 2009 ~20010 년(OEM ,외주개발)

LOW - END 제품군 ► Premium 제품군 확대

- 3단계 : 2011 년이후 ~(자체연구소,해외설계)

Premium 제품군 ► High end 제품군 개발 (Full-line up구축)

4) 경기변동의 특성 및 대체시장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공작기계 제조업은 주로 자동차, 중장비, 조선산업과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매출은 주요 전방산업의 영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 및 설비투자계획 등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공작기계 산업은 주 수요처인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총 수주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동 업계의 수요가 전방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변동에 의해 좌우되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기복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 시에는 선행성을 보이며, 경기상승 시에는 후행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호경기 불경기 예측의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큼 경기변동에 민감하나, 한편으로는,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가장 큰 영향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이와 같은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영업력 확대를 통한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여 수출을 늘려 국내외 매출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공작기계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던 특수한 공작기계를 개발하여 대체공급하는등 동사의 제조여건에 맞는 대체 산업을 확대하여 외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산업용 로봇

1) 영업의 개황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 미국의 유니메이션사에서 개발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포드자동차에서 1961년경 다이캐스팅 머신으로부터 주물부품을 하역하는 작업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이캐스팅 환경은 주물공정중에 방사되는 열과 연기 때문에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워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대표적이 대상이었습니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의 사용은 로봇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근래의 서비스 로봇의 경우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의 경우는 정밀도와 스피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용도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액정, 반도체 업계 용 및 클린 환경 하에서 반송용 로봇을 위시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PDP나 LCD에 사용되는 얇은 유리판을 이동하는데 있어서 정밀하게 얼마나 빨리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가가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직다관절, 수평다관절, 다이렉트 드라이브 로봇 등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Clean Robot 부품개발 납품을 시작으로 삼성전자로 LCD 라인에 공급되는 LCD 이송용 로봇(LTR- LCD Transfer Robot)으로 2005년 5월 LCD Link 8세대를 제작개발을 시작으로 6, 7, 8세대 라인에 매년 매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여대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삼성전자의 8세대, 11세대 등에 많은 매출이 예상되는 등 당사의 신동력 사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LTR(LCD Transfer Robot) 산업용 로봇 시장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장점유율의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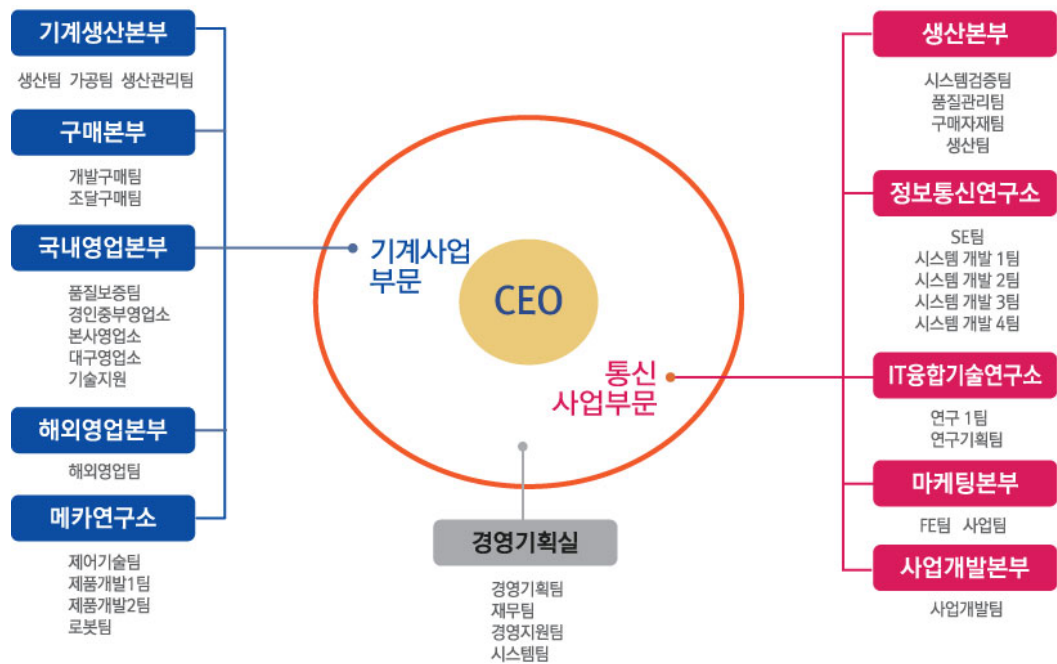
다. 공시대상 사업부문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	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내용
통신사업부문	C26410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 제조
기계사업부문	C29221	공작기계 및 산업용로봇 제조

라. 조직도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1년 말 기준 매출액은 1,243억원으로 전년도(746억)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7억원과 32억원을 기록해 2010년 대비 -3.6%, -2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재료가격 상승, 사업확장으로 인한 판관비 증가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상황에 대한 사항은 Ⅲ.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2011. 12. 31 현재

제 15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6기	제 15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70,952,484,128	41,203,309,044
Ⅱ. 비 유 동 자 산	45,355,081,705	40,600,253,334
자 산 총 계	116,307,565,833	81,803,562,378
부 채		
Ⅰ. 유 동 부 채	57,731,648,900	45,087,956,872
Ⅱ. 비 유 동 부 채	15,068,920,135	13,810,734,182
부 채 총 계	72,800,569,035	58,898,691,054
자 본		
Ⅰ. 자 본 금	7,330,605,000	5,613,670,000
Ⅱ.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0,326,914,413	6,696,938,810
Ⅲ. 기 타 자 본 항 목	(17,834,216,131)	0
Ⅳ. 이 익 잉 여 금	13,683,693,516	10,594,262,514
자 본 총 계	43,506,996,798	22,904,871,32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16,307,565,833	81,803,562,37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5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6 기	제 15 기
Ⅰ. 매 출 액	124,316,956,018	74,600,365,551
Ⅱ. 매 출 원 가	105,773,910,424	62,605,288,553
Ⅲ. 매 출 총 이 익	18,543,045,594	11,995,076,998
판매비와관리비	13,536,552,374	7,109,252,872
기타수익	13,800,844	53,150
기타비용	311,100,299	0
Ⅳ. 영 업 이 익	4,709,193,765	4,885,877,276
기타이익(손실)	319,749,207	112,094,215
금융수익	196,222,498	216,537,975
금융원가	1,889,727,245	939,855,854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35,438,225	4,274,653,612
법인세비용	156,645,564	190,881,531
Ⅵ. 당기순이익	3,178,792,661	4,083,772,081

기타포괄손익	(89,361,659)	(318,554,899)
VII. 총포괄손익	3,089,431,002	3,765,217,18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5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6 기	제 15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3,586,513,101	10,488,748,76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497,082,099	6,723,531,583
2. 보험수리적손익	(89,361,659)	(318,554,899)
3. 당기순이익	3,178,792,661	4,083,772,081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8,333,334	8,333,334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8,333,334	8,333,334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90,645,500	0
1. 이익준비금	26,422,320	0
2. 현금배당 (전기: 없음, 당기: 20원)	264,223,180	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304,200,935	10,497,082,09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16 기	제 15 기
현금 배당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20	-
		우선주	-	-
	시가배당률(%)	보통주	0.55	-
		우선주	-	-
	배당금총액(원)		264,223,180	-
주식 배당	1주당 배당주식수(주)	보통주	-	-
		우선주	-	-
	배당주식총수	보통주	-	-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	14,661,210	
		우선주	-	-

* 상기의 제16기 배당금 총액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총 발행주식수 14,661,210주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450,051주를 제외한, 13,211,159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당해사업연도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 수치이며, 비교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 당사는 2011년 2월 1일을 합병 기준일로 (주)스맥을 흡수합병하였으며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역합병에 해당하여 비교표시된 직전 사업연도 자료는 "구 (주)스맥"의 내용입니다.
- 상기 내용은 내부결산 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NEWGRID.COM)에 한다 (이하생략)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ESMEC.COM)에 한다. ... (현행과 동일)	홈페이지 주소변경

제4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 --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개정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서 승인 요건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있음.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현행과 동일)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개정상법 제400조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감사의 책임경감 근거규정을 포함함. - 개정상법 제412조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의 권한 신설 - 개정상법 제412조의4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신설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생략) ②~③ (생략)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 --.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생략)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삭제) ②~③ (현행과 동일)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 --.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내용을 반영.
부칙추가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8조의2, 제41조, 제49조,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상법의 시행시기가 2012년 4월 15일부터이므로 정관개정내용 중 개정상법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류대현	1948.06.25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류대현	세무법인석성성남지사 대표세무사	수원대학교 경영학 박사 성남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현)세무법인석성 성남지사 대표세무사	없음
-----	------------------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1)	7(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억원	25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